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년도 교회학교 여름계절학교 막 올라

6월 6일 새가정부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이어져
교회당과 충현기도원, 기타 장소에서

1997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막이 올랐다. 지난 6월 6일 새가정부의 제14회 여름 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 것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연이어 교회학교 각부의 여름계절학교가 막이 오른다.

대부분 각급 학교 방학과 여름철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열리게 되는 여름계절학교는 특별 신앙 훈련과 함께 보충 교육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에 잘 활용하면 교회학교 운영과 발전, 각 개인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여름계절학교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연초부터 강사와 장소 등을 위해 준비해 오고 있다.

예년과 큰 차이없이 영아부~소년부까지는 교회당에서, 중등부부터는 주로 충현기도원을 장소로 사용하게 되고 몇몇 부서가 외부의 장소에서 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도 주로 내부 강사, 지도교역자가 담당하게 된다.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눈 앞에 닥친 계절학교를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 계획,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계절학교이기에 더욱 실효 있는 계절학교로 진행하고자 하는 기대 등을 볼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계절학교가 연례적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연구, 노력과 함께 학부모와 전 교회적인 관심과 협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부서는 알찬 여름행사가 되기 위



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예년보다 더욱 두드러져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아도 좋을 것이다.

금년 여름에는 특히 선교위원회의 해외 단기선교 사역과 대학·청년부 중심의 국내 낙도·오지 전도사역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한결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청년1부는 이를 연결하여 여름수련회를 해외 단기 선교사역과 국내 낙도·오지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및 훈련, 파송의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있다.

대학부도 여름수련회를 6월 말과 7월 초순에 끝내고 여름 사역에 돌입하게

된다. 각 부서의 여름계절학교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진은 지난해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 중등3부 수련회의 한 장면)

충현동산 관리동

6월 12일에 준공감사에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에 있는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 공사가 끝나 오는 6월 12일(목)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준공감사에배를 드린다.

지난 96년 9월 30일 기공예배를 드린

지만 8개월 보름만에 준공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관리동은 연면적 총 149평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30평에 운동장과 창고 및 보일러실, 2층은 94평으로 식당과 주방, 관리사무실, 샤워실 및 화장실, 3층은 25평으로 관리인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창인 목사가 설교한다. 성도들의 동참을 위해 오전 9시 4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97 교사 단기수련회 실시

6월 17일(화), 연관 부서별로 전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 단기수련회가 오는 6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실시된다. 이는 각 상강단계별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97년도 각 교회학교의 여름계절학교를 앞두고 교사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기수련회가 예년과 다른 점은 연관 부서별로 묶어 각 부서에 적합한 내용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의와 토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연관 부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탁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 노영주 전도사(충신신대원 졸업, 충신교회 유치부 지도, 현 총회교육국 공과제작 담당자)
- 초등부, 소년부, 중등1·2·3부, 고등부 / 김희수 목사(교육훈련원 지도)
- 대학부, 청년1·2부, 새가정부, 장년1·2·3부, 소망부, 예산부 / 송인규 목사(충신신대원 졸업, 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사랑부, 예배다부 / 김일권 목사(고신대학원 졸업, 현양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소장, 특수 선교전학 이사장)
- 영예배부 교사들은 각각의 교육과정 등에 따라 참석한다.

1997년도 여름 계절학교 개요

부서	주제	성경	찬송	장소	일시	강사
영아부	기쁘게 도와주는 아이 될래요	행 3:6	사랑하며 살래요	영아부실	7. 22 - 7. 23	박도수
유아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고전 10:31	301장	교육관212호	7. 21 - 7. 22	계선화
유치부	예수님처럼 자라자	눅 2:52	377장	교육관205호와	7. 22 - 7. 24	한영준
유년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자라나자	시 24:1	13장	유아부실	7. 16 - 7. 17	염현일
초등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살후 2:13-14	210장	교육관307호	7. 16 - 7. 17	한승일
소년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행 13:22-23	453장	교육관407호	7. 16 - 7. 17	박노철
중등1부	마음을 새롭게 하자	로 12:2	210장	충현기도원	7. 21 - 7. 23	김희수
중등2부	사춘기를 예수님과 함께	막 10:19-21	493장	충현기도원	7. 21 - 7. 23	정광욱
중등3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막 1:35	480장	충현기도원	7. 23 - 7. 25	이흥성
고등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자	시 30:11	138장	양수리중앙관	8. 07 - 8. 09	이국병
대학부	새 언약 새 세대를 위한 눈물	렘 30:31-34	303장	광림백운중앙관	6. 30 - 7. 03	정광욱
청년1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골 1:27-28	351장	농협연수원	7. 16 - 7. 18	김동익
청년2부	행하는 자라야	막 7:21-27	379장	갈렐리홀	8. 17 - 8. 19	김정우, 강훈택
장년1부	강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딤후 4:8	214장	충현기도원	7. 16 - 7. 17	박영용
장년2부	그리스도의 강한 분량에 이르자	엡 4:13	493장	합동신학교	7. 07 - 7. 08	윤영탁, 송인규
장년3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 1:27	469장	갈렐리홀	7. 08 - 7. 09	장규남, 김희수
소망부	우리의 축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	204장	갈렐리홀	7. 03 - 7. 04	이종대 외 1명
새가정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가정	행 10:24	377장	충현기도원	6. 05 - 6. 06	성봉환
사랑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요 14:6	484장	교육관107호와	7. 16 - 7. 17	이준우
예배다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요 14:6	484장	충현기도원	7. 17 - 7. 19	이준우, 박연계
영어교육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자	막 8:34-35	300장	충현기도원	8. 14 - 8. 15	이승림, Huizinger

금주의 주부교양강좌

6월 12일 오전 10시 20분 ~ 12시
세살 버릇 여든까지의 교육

강사 / 송자 박사

- 연세대학교 총장
- 교육개발위원회
- 교육교육본부 위원장

● 김창인 원로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두 종류의 신자

(이사야 1:10-17)

신자들을 둘로 나누면 거짓 신자와 참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다 예수 믿는 신자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참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1. 거짓 신자는 어떠합니까

(1) 거짓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영의 귀로는 악마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신중하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멸면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반갑게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책망을 코웃음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① 거짓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관원'은 지도자란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한 것은 멸망을 받고야 말 거짓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은 소돔의 관원들이 하던 짓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돔의 관원들은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은 동정심이 없고 잔인하여 강포로 일을 삼으므로 약자의 피가 그들의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소돔의 관원들은 음란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았으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음란했습니다. 셋째로, 소돔의 관원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권운동만 했습니다.

'소돔의 관원'인 거짓 지도자는 이렇게 망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② 거짓 신자는 어떠합니까?

'고모라'도 역시 소돔이 율왕불에 타 때에 같이 타버린 성읍입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란 교인들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고모라처럼 율왕불에 타 죽을 거짓 신자란 말입니다. 5년, 10년, 예배당에 나와 보았을 때 그 마음 속에 더러워진 열매를 존귀할 뿐입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강포합니다. 선은 없고 남은 것은 약뿐이고 못된 짓은 다 하고도 잘났다고 덤벼드는 강포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반역만 하지 순종이 없습니다. 셋째로, 이웃 사람에 대한 복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넷째로,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10년을 다

녔는데 한번도 똑바로 회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손해만 끼치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짓 신자는 되지 맙시다.

(2) 거짓 신자는 형식만 찾습니다

거짓 신자는 형식을 아주 잘 갖추어 놓습니다. 찬미도 경건한 모양으로 부르고 기도도 유창하게 드리고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형식뿐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는 하지만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찬양도 음악적으로는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 이것이 거짓 신자입니다.

(3) 거짓 신자는 악을 겸하여 합니다

거짓 신자는 선을 행한다는 간판은 걸어 놓았으나 뒤에서는 악한 일을 쉬어가며 행합니다. 구제를 한다면서 자기의 주머니만 채웁니다. 물질에 눈이 어둡고 음란으로 마음이 더러워졌고 쓸데없이 교만합니다. 못된 짓이 버릇이 되면 선한 일을 한다면서도 악을 겸하여 하니 거짓 신자입니다.

2. 참된 신자는 어떠합니까

(1) 참된 신자는 어떠합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는 이단자가 유혹하는 말에 끌려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별할 줄 압니다.

②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는 거역하는 법이 없이 믿고 순종만 합니다. 말씀 한 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면 그대로 믿습니다.

③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동물 하나를 주어도 고맙고 편 여행길에 같이 가 준다고 해도 고마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시며 전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고마운 줄 모르는 양은 길을 잃어 버리고 짐승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탈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니 언제나

신자들을 둘로 나누면 거짓 신자와 참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형식만 찾고 악을 겸하여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재정비합니다. 또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생활을 합니다.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팔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④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원경과 같아서 내세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과 같아서 나의 지극히 작은 죄병도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므로 자신을 점검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봄으로써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검토하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지체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살자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마음이 간절해도 내 힘으로 행하지 못하고 또한 내 방법으로 선이 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지혜가 생기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성령을 살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선을 행할 방법과 실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적 선은 오늘 선을 행하다가 내일에는 무서운 악마의 정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선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행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공은 핏줄리는 희생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짜고 피를 쏟는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넷째로, 천국을 소망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 있다 가는 여관이고,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래 살 생각만 하다가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을 생각을 하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바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죄를 풀어 버리면 인간적으로는 순해를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거친 다음에 땅 위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살다가 세상을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잃어 버릴 것이 두려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들을 죄와 섞어 놓을 수가 없어서 좋은 것을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것은 죄뿐입니다.

(2) 참된 신자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잘 믿는 성도는 내용만 충실하고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한 포기 살려도 나무 겉질이 그대로 있고 그 속으로 진액이 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형식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는 겉모양도 단정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더 잘지 알지 못하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잡배의 말에만 정신을 파는 자식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만 정신을 파는 사람들은 바른 신자 노릇을 못합니다.

원전대,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

THE TESTIMONY of JOHN THE BAPTIST

(JOHN 1:19-34)

A part from Jesus Christ, John the Baptist is probably the most crucial person in the Gospel. His birth was meticulously recorded in the same manner as Jesus (Luke 1:5-25). His entrance into the world was marked by angelic proclamation and divine intervention (Luke 1:57-80). Although his formative years were lived in the desert, his public ministry ended nearly four hundred years of prophetic silence and paved the way for the Messiah (Luke 1:80; 3:3-6). His ministry links God's covenant of salvation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to Jesus Christ's coming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doubt, John is a significant figure in the salvation history of God.

The central theme of his preaching was,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att 3:2). In essence, his message and ministry marked the ending of the law and the prophets and proclaimed the inbreaking of the kingdom of God (Matt 11:21; Luke 16:16). He was called "The Baptist" because his practice was to baptize with water those who responded to the message and sincerely repented of their sins (Matt 3:1; Mark 6:14; Luke 7:20). He was also a no "crowd pleaser" type of guy who willingly confronted the hypocrisy of the immorality of the religious establishment (Matt 3:7; Luke 3:7). He did not hesitate to expose the immorality of Herod and chose to die a martyr's death rather than compromise his convictions (Matt 14:3-12; Mark 6:17-29).

Jesus acknowledges the central role that John played in God's plan of salvation when He mentions that "among those born of woma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Luke 7:28). Obviously, John is highly exceptional. The reason he stands out from all other human beings is because of his testimony. What is his great testimony? Today's scripture passages point to the answer so that we can fully apprehend, appreciate, and apply his testimony to our own Christian faith.

"That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to him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And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 but confessed, 'I am not the Christ'" (vs. 19-20). John did not hesitate to deny that he was Christ. The Jews then questioned whether he was Elijah or the Prophet (vs. 21). At that time many believed that Elijah would come first, and then the Christ (Matt 11:14; 17:10; Mark 6:15; 9:11; Luke 9:8). The belief that Elijah would return an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can be traced to Malachi 3:1 and 4:5. Their questioning of John being the Prophet is a failure of their interpretation of Deuteronomy 18:15 in which the Prophet refers to Christ. John flatly denied both references to himself (vs. 21). Nevertheless, Jesus affirmed that Elijah must come first and that he had come in the person of John the Baptist (Matt 17:11-13; Mark 9:12-13). John fulfilled Malachi's prophecy in a spiritual sense, rather than in a literal way.

When they questioned him further as to who he really was,



세례 요한의 증거 (요 1:19-34)

복 음서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눅 1:5-25). 그의 탄생은 천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성장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으나, 그의 공적 사역은 약 400여년 동안 계속되었던 선지자들의 침묵을 깨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끔 하였습니다(눅 1:80; 3:3-6). 그의 사역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매듭짓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마 11:21; 눅 16:16). 그는 "세례자"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요한이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신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마 3:1; 막 6:14; 눅 7:20). 그는 또한 "군중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과감하게 지적하였습니다(마 3:7; 눅 3:7). 또한 그는 헤롯왕의 추행을 과감하게 들추어내었고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오히려 순교자의 죽음을 선택한 자였습니다(마 14:3-12; 막 6:7-29).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요한이 담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시면서, "여인이 난 자들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7:28). 분명히 요한은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출할 수 있는 까닭은 그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요한의 증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요 1:19-20).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저없이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가 엘리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인지를 물었습니다(21절).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 11:14; 17:10; 막 6:15; 9:11; 눅 9:8).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하여 질문하였던 것은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가르킨다고 말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에 대한 이 두 가지 언급 모두에 대하여 단호하게 부인하였습니다(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하는 것과 그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미 왔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마 17:11-13; 막 9:12-13).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을 문자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진정 누구였는가에 대하여 계속하여 묻자,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23절)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대하여 말하면

John answered, "I am a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as Isaiah the prophet said" (vs. 23). Referring to Isaiah's prophecy (40:3), John powerfully mentions that he is just a voice - an instrument of God that cries out to the world to prepare the way for Christ. After his repeated emphasis that he was simply a witness to the Light, the Jews questioned him as to why he was baptizing. John stated that Jesus was greater than he, and that Jesus had a more powerful ministry and baptism (vss. 26-27). John fully accepted his subordinate role to Christ and understood the power that Christ commanded over his own.

"The next day he saw Jesus coming to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vs. 29). John was the greatest born among women because he had the privilege of pointing to the Lamb of God. He didn't just say, "Look there's Jesus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but he specifically referred to Christ as the Lamb of God. History and prophecy come together in this metaphor. The Passover lamb (Exod 12:3) symbolizes Christ's power to take away sin - not just the sins of Israel but of the whole world! The Messianic prophecy of the Lamb of God (Isa 53:7,11) shows that He will suffer and bear the iniquities of God's children. And the New Testament tells tha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we will be redeemed (1 Peter 1:19). Here is the fruition of John's preaching!

John's witness to the truth is straight forward, "I have seen Spirit descending as a dove out of heaven, and He remained upon Him. I did not recognize Him, but He who sent me to baptize in water said to me, 'He upon whom you see the Spirit descending and remaining upon Him, this is the One who baptizes in the Holy Spirit' ". John baptized with water. He witnessed firsthand the Spirit of God touching Jesus and empowering Him with the capability to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God specifically spoke to John and explained to him this remarkable event.

The climax of John's testimony comes when he declares, "I myself have seen, and have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vs. 34). Wow! John had the privilege not only to know who Christ was but to see Him face to face. He had direct evidence from God that Jesus was really (absolutely) the Son of God. With this information, John publicly declares and validates the truth of Christ's presence, position and purpose.

John understood his mission. His heart knew that Christ must increase while he decreased (John 3:30). His successfulness is shown by the scripture passages that state, "Many came to Him and were saying, 'While John performed no sign, yet everything John said about this man was true.' Many believed in Him there" (John 10:41-42). The Jewish people testified that John's witness was exactly right and the result was that many were saved.

John's job was to testify and point to Jesus Christ as the Lamb of God. Our job as Christians is absolutely the same! We must keep the eternal and not the temporal things close to our heart. Our opinions regarding Christian ethics and morals is inappropriate. The Christian world today wastes its precious time and resources preaching and teaching on what's good and bad or what's right and wrong for society. They miss the point and the opportunity to serve Christ.

As servants of God we must review John's heart and concentrate all our efforts to preaching, teaching, or witnessing to Jesus Christ - The Lamb of God! The consequences for error is an eternal curse.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is what everything is about. The cross is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 for our Christian lives. There's no in between, perhaps, or other place we can go to receive God's grace. Jesus Christ is real and He is the Lamb of God. Our testimony should reflect John's testimony in that we always point to the Lamb of God as our Lord and Savior - the Son of God.

서(사 40:3), 자신은 단지 하나의 소리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은 단지 빛에 대한 증인에 불과하다고 여러번에 걸쳐서 강조하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욱 위대하시며, 오셔서 더욱 능력있게 일하시며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26-27절).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그의 역할을 온전하게 받아들였고 또한 주님께서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가리킬 수 있었던 특권 때문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특별히 가리켰습니다. 역사와 예언은 이 은유에서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 양(출 12:3)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은(사 53:7) 그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담당할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벧전 1:19). 여기에 요한의 설교의 성과가 있습니다.

전리에 대한 요한의 증거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요 1:32-33)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능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증거의 절정은 그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34절)고 증언한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 재를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하여 공적으로 선포하며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며 자신은 낮아져야 할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요 3:30). 그의 성공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말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는 증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요 10:41-42). 유대인들은 요한의 증거가 정확한 것이었음과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 대한 우리의 호의적인 견해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좋고 나쁘며, 무엇이 옳고 틀린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에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역의 초점을 잃고 아울러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요한의 심정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버리는 결과는 영원한 저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회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재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가르키는 요한의 증거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선교를 생각하며 ◇



“만사형통 합시다”

이준우

(강도사, 사랑부·에바다부 지도,
출판국·교육연구소 부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장애인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사대복입니다.” 그러면 “만사대복이라뇨?” “예,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선교를 잘 하면 만사(모든 일)가 형통(잘 되어)하여 대복(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선교에 대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선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과 만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영적 육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사역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 유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같은 장애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장애인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사역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심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방을 자주 합니다. 심방하다보니 저로서는 자연히 많은 장애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알게 되고 때때로 도와야 할 일도 접하게 됩니다.

지난 5월 한달간 저는 몇몇 농아인 가정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잔업까지 하면, 밤 9시까지 일하는 고된 일과 속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에바다부 교인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 갔을 때는 사장님께서 얼마나 농아인 형제를 칭찬하시는지,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 농아인 형제는 프레스와 사출을 하는 그 공장에 제일 일찍 와서는 기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기계를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빨리 가서 의자와 탁자를 정리하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하면서 시간날 때마다 수확로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내고는 일에 다 끝나면 남은 쪼찌끼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늦게 집으로 갑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담겨서 농아인 형제와 마음 속에 역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코 감사가 제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년역 앞 한 모퉁이 과판대에서 머리핀과 반지 등을 장사하면서 새시는 한 자매님은 재차장애인이시면서, 3년 전의 신장암 수술 후 유증으로 청각 장애까지 있게 된 분입니다. 아예 신앙이 흔들리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생활도 억척스럽게 하시는 자매님에게 최근에 힘

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겹게 벌어서 모처럼 좀 많이 장만한 물건들을 창고로 도둑 맞은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매님은 힘을 내어 살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다.

여러 공장과 가정들을 심방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열악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 교인들을 대하다보면 화도 나고 서글픔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일부이겠지만 어떤 공장은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음 같아선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만 뒤!’ 하고 싶는데 마땅히 다른데 보내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꼭 눌러서 참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아인들과 장애인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겨움 속에서도 순수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난 6월 2일(일)에는 사랑부 교사 25명과 함께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애향원을 갔다 왔습니다. 애향원에는 사랑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으로 간 친구들이 여럿 있어서 아이들을 보기 위한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너무 거리가 멀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번엔 모처럼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인지 교사들 모두가 마냥 즐거워 하며 더욱이 아이들을 본다는 사실에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4시간도 더 지나 도착한 애향원!

버스에서 내려 건물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들이 우리들을 알아보고 와서는 필적필적 뛰며 반가워서 부둥켜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누가 그래라 하지 않았는데도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마주 보며 또 껴안고... 그렇게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신지체가 무슨 일을 하며, 지능까지 낮으니 무슨 기억력이 있겠느냐고 속단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중에는 전쟁남들의 아픔까지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며 심지어는 호지 않은 선생님에 대한 안부도 묻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의 개척도 없는 아이들! 반개우면 있는 그대로 반개움을 표현하는 아이들! 즐겁거나 슬프거나 자신의 출세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이들! 더욱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그들은 찬양 찬곡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주시는 따옴의 기쁨과 평안을 한데께 맛보면서, 마치 가슴 속을 후련하게 풀어내리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평안하고 아늑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느끼면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정상인입니까?

이 세상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되물을 분도 없지 않겠

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간의 키가 차이나지 않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언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대인관계에 장애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장애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든, 어디를 가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이 계각기 마련되어 있는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은 결코 우리보다 열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몸으로 봉사해야 하면 봉사로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장애도 주시고 힘겨운 고난도 주십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장애인은 더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때때로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다른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장애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

최대 힘있게 이겨내면서 고난을 믿음 성숙의 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건강해면서도 불행하다 하더라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과 견줄 때 누가 진짜 장애인이었습니까.

저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이 우리 중현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여 믿음 안에서 활발하게 일반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맞는 직장과 직종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뜻있는 사업가들을 통하여 개발되게 해달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장애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과 건강한 비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양육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사귄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누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에바다부와 사랑부에 나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라도, 어디든지 달려갈 생각을 갖고 장애인 전도와 신앙교육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의 사명 중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청각장애인은 에바다부로, 정신지체와 자폐 경향이 있는 분들은 사랑부로, 시각이나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연령과 필요에 따라 교구와 각 교회학교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애인과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셨으면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의 벽을 허물고 하나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취재수첩

‘충현 젊은이와 함께’ 마무리

청년교구와 대학부, 청년 1, 2부는 지난 6월 1일을 ‘충동원 주일’로 맞으며 5월 한달간 있던 모든 행사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5월 11일 충현젊은이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12~13일에는 갈릴리홀에서 방선기 목사, 허문영 박사, 박성수 사장과 여러 선교사들을 강사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영역, 즉 통일과 선교, 직업과 소명, 비전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대학부와 청년부의 화합과 일치를 주제로 14일 고덕동 광동화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서울 명동거리로 노방전도를 나갔으며, 이 전 도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일 선교관 앞마당과 지하 식당에서는 북한동포 구제와 단기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알뜰시장과 일일찻집, 전시회 등을 마련하여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였다. 5월 마지막 행사는 31일에 있는 문화행사로 클래식 Praising, 영화, 성경, 중창, 레크리에이션, 해비타트 사역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파트별로 동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 각자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사로 많은 젊은 지체들이 기독교적 시각으로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기도제목과 감사의 제목, 비전을 서로 나누며 찬양집회로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중등3부의 성경퀴즈대회

지난 6월 1일(주일) 중등3부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공과내용들의 범위를 가지고 성경퀴즈대회를 열었다. 한반을 한 팀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선생님을 제외한 그 반 학생들끼리 의논하게 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에 따라 O, X 문제들이 많았고 개인이 답할 수 있는 문제나 찬송가 제목을 맞추는 문제들도 있었다. 정답을 맞춘 반에는 선생님들이 O, X판에 스티커를 붙여 가장 많이 맞춘 반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중등3부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배운 주님의 말씀들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청년1부-충동원주일

청년1부에서는 지난 6월 1일(주일)을 충동원주일로 보냈다. 이것은 5월 한달동안 있었던 행사, ‘충현 젊은이와 함께’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 때에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한 것이다.

충분한 음식들과 함께 팀별 교제 시간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 시간은 팀별로 새로운 지체들과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이었다. 교육관 507호 밖에는 이곳을 가득 채웠던 긴 의자들이 나와 있었고 안에는 각각 따로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사용해 팀원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이나 원래의 팀원들과도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팀별 발표의 시간이었다. 신앙생활과 선교, 기독교청년과 불신가정, 기독교



쓰레기 분리수거합시다

종이류 쓰레기는 교육관 비상계단 쪽의 쓰레기함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이제는 점차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협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주일, 특히 교육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할 쓰레기

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쓰레기를 구별하는 일이다.

사무국에서 특별히 마련한 종이류 쓰레기함을 교육관 각층 비상계단 쪽에 마련해 놓았다. 종이류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함에 넣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여서 비용도 절감되도록 해야 하겠다.

청년과 직장생활, 기독교청년과 교회라는 4가지 주제의 경우들을 팀이 선택하여 팀원들끼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에는 동기들끼리 하나가 되어 게임을 하는 등 전체 교제(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것으로 청년1부만의 교제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좀더 구체적인 교제 시간이 시작되었다. 우선 청년1부의 회원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이어 김동석 목사(청년1부 지도)가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요 6:1-15)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 후 광고와 암송시간을 끝으로 이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들을 통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충현의 젊은

이들이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바칠 수 있길 기대한다.

▶ 초등부에서는 오는 6월 29일(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복지관 지하2층에서 어린이 초창찬치를 실시한다.

▶ 예배다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농아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농아학생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에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전도를 통하여 예배다부 학생만이 더욱 부흥하기를 소원한다.

▶ 지난 6월 2일(월)에 사랑부 이준우 강도사와 교사 25명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애향원을 다녀왔다. 애향원은 정신 지체 시설로서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애향원에는 사랑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으로 간 친구들이 여럿 있어서 사랑부에서는 이들을 만나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예배와 즐거운 친교를 나누고 돌아왔다.

▶ 탁아부에서는 오늘(6월 8일) 3부 예배 후 베들레헤홀(탁아부실)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구명신 전도사.

▶ 단기선교를 위한 나라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있다.

(기자/박주영, 임필아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10개월만에 돌아온 케냐 차가 없어 사역지로 못 들어가고

나이로비에서 현지 언어 습득의 기회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7-9)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였고 바로 저에게 주신 약속

이었습니다.

충현 식구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케냐에 4월 19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케냐 공항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저의 부족한 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의 부족함을 사용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의 무능하고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데 사

용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케냐 땅을 다시 밟기 직전에 한 기도였습니다.

10개월만에 돌아온 케냐는 그 동안의 가뭄으로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가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올랐고 현지인들은 살기가 더욱 궁색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4월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가뭄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케냐는 우기로 접어들었고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기는 5월말 정도까지 계속될 것인데 지난달까지는 가뭄으로 큰 고생을 하였는데 요즘은 비로 인해 죽는 일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지 거의 2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맛사이 마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현재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기라서 4륜 구동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분들의 차는 보통 승용차인데 만약 들어갔다가 비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사역지에 못 들어갈 것이라 하고 한국에서부터 예상하였지만 막상 케냐에 도착하니 사역지에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몹시 안타깝고 아프게 합니다. 가뭄이 되면 맛사이 남

자들은 풀을 찾아 떠나고 집에는 여자와 아이들만 남는데 때때로 이런 경우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가뭄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기가 좀 나아지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맛사이에 가려고 합니다. 차량이 구입되기까지 저는 당분간 나이로비에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동안 시간을 아끼기 위해 현지 언어(스와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스와힐리어를 올바르게 익히고 차가 준비되는 대로 맛사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다급한 기도제목은 차량구입입니다. 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에게 보여 주신 충현의 식구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물질 후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자를 통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현의 온 식구들 마음과 가정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며 저의 도착 소식을 이만 맺습니다.

1997년 4월 29일
고은빈 올림